

II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□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

- (내용) 정부는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「제2차 무역·투자진흥 대책회의」를 열어 수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논의
 -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지원 자금 여력을 확충하고 기업들에 대한 수출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무역금융 경색을 완화
 -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마케팅을 강화

<수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>

구 분	내 용
수출 지원 자금 여력 확충	- 은행의 무역 금융 증액을 저금리(5%)로 지원 - 수출입은행 채원 확보(20억 달러) - 수출보험 2,000억 원, 신용보증 5,000억 원 등을 추가 출연
기업 수출 자금 지원	<중소·중견기업 지원> - 신용장을 받은 사업자에게 무역금융 신용 대출 - 인수도(D/A)외상 수출환어음 매입을 위한 특별 신용보증 - 대기업의 구매증인서를 근거로 무역금융 지원 <대기업 지원> - 본사와 지사간 인수도(D/A)거래 신용보증 - 수입 L/C에 대해 신용보증 연장 - 수출입은행을 통해 플랜트 수출보증 지원
수출 마케팅 강화	- 12개 지방도시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 설치 - 貿易人賞제정, 유망 수출중소기업 발굴, 수출입제도 개편
외국인 투자 유인	- 외국인 투자 자유 지역 설치, 주한 외국 기업인에게 미니 앰배서더 위촉 - KOTRA에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대행

- (평가) 핵심 내용과 시기적인 면에서 이번 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

됨

- 그간의 수출 부진이 무역금융 시스템의 마비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시정하는 데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
- 지난 5~6월중에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며, 최근에는 엔화가치 하락과 더불어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의 수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정부의 종합대책은 시기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
- (보완 과제) 무역금융 경색을 해소하는 데에 은행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

- 정부가 보증을 통해 기업의 수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도, 그간의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온 은행들이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
- 금번 조치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제외되었는데, 국내 수출의 절반을 여전히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포함시켜야 함
-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융과 관련된 대책도 보완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

(정 반 석 bsjung@hri.co.kr ☎724-4045)